

다산포럼



김한영  
지식 칼럼니스트  
데일리인베스트 대기자

율법은 어감이 막연히 나쁘다. '예수는 해방, 율법은 구속'이라는 인식도 있다. '구속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죄'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한다. 율법을 지키면 자유롭다. 결정장애에 걸리기 딱 좋은 복잡한 이 세상. 율법은 의식의 수고를 덜어주는, 자동화된 무의식처럼 작동하며 고민할 일, 스트레스받을 일도 줄인다. 율법은 규범이다. 어기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학폭·미투·음주운전·마약·갑질·말실수... 어린 날, 젊은 날의 실수도 율법은 기혹하게 벌한다. 유력 장관후보, 대권 후보의 감투도 물 건너 간다. 판 세상 이야기 같던 인과 응보·상선벌악이 갑자기 작동한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엔터테인먼트·정치 분야 셀럽들이 겪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종교적 규범의 세계는 서릿발 같다. 상당수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유럽 사람들 사후세계가 있다면 우리는 좋은 곳에 간다고 낙관적으로 기대한다. '숫타니파타'에 따르면 지옥은 반드시 엄청난 죄를 지어야 가는 곳이 아니다. '아무 때나 잠자는 버릇이 있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율법의 재발견

버릇이 있고, 분발하여 정진하지 않고 게으르며, 걸핏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라고 이 남전대장경(南傳大藏經)에 나온다. 예수도 마찬가지로 엄격하다. 이렇게 말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 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블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마태오의 복음서 5:22)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빼어 던져버려라. 모든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마태오의 복음서 5:29)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율법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율법은 복잡하다. 몇 가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첫째, 율법은 그 본질이 무조건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 그리스도교와 달리, 유대교에서는 율법이 신앙의 핵심이다. 마이모니데스, 막스 베버, 토머스 소웰, 찰스 머리, 유발 하라리 같은 많은 석학이 유대인이 이룩한 성과와 율법이 유관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율법은 모든 종교에 내재한다. 불교의 오계·팔계, 유교의 예·오륜, 이슬람의 샤리아 등.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에서도 발견된다. 율법에 대체로 부정적인 개신교도 '율법적'이라 볼 수 있는 금주·금연과 주일 지키기를 실천한다. 개신교보다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 '율법적'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셋째, 율법은 변한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한다. 율법을 둘러싼 부침의 주기가 있고 진화도 있다. 율법은 단순화·복잡화 과정을 거친다. 율법이 대세인 시기가 있고 반율법적·비율법적·탈율법적 성향이 득세하는 시기가 있다. 예컨대 종교개혁은 반율법적인 운동이었지만 개신교 중에서도 모범적인 청교도주의에도 율법이 재등장한다.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1850)는 17세기 뉴잉글랜드 청교도 사회의 숨 막히는 율법주의를 그리고 있다. 선불교에서도 계가 중요하지만 교종이나 초기불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한다. 금주법이나 낙태반대운동 같은 율법적 운동이 급부상하기도 한다. 실학은 오륜을 실천적·평등적·실용적·비판적으로 재해석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율법진화적이지 않다. '오로지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리스도교 교단은 없다. 불교에서도 계를 지켜 성불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의 뿌리는 율법이다. '나라에 충성, 부모님께 효도'는 3국 통일에 기여한 세속오계의 사군이중(事君以忠)·사친이효(事親以孝)를 뿌리로 한다. 율법은 간단할 필요도 있다. 예수는 율법의 핵심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다. (마태오의 복음서 22:37-40)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인여천(事人如天) 한마디로 충분하다. 율법은 시대에 맞아야 한다. 전쟁과 같은 무한경쟁에서 이기고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21세기 세속오계 같은 간단한 계율이 아쉽다.

기고



장동언  
기상청장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산을 챙기지 말지 망설이는 순간, 우리는 모두 기상학자가 된다. "오후에 비 확률 70%"라는 일기예보를 들었음에도 '과연 비가 올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 줄의 일기예보 속에는 '불확실성'과 '애매함'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매일 위성과 레이더, 전국의 지상 관측소를 통해 방대한 기상 자료를 수집한다. 하지만 광활한 지구를 빈틈없이 관측한다는 것은 사막의 모래 전부를 손바닥에 담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나 험준한 산악 지대는 관측 장비 설치조차 쉽지 않고 아무리 정교한 관측 장비라 해도 그 해상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관측 단계에서 생긴 작은 빈틈들은 예보에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더욱이 현대 기상 관측 시스템이 직면한 도전은 물리적 한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기 중의 미세한 변화까지 찾아내려는 최첨단 센서들은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 오히려 혼란을 더하기도 한다. 마치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작품을 완성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자료를 의미 있는 패턴으로 엮어내

출근길에 우산을 가져갈까

는 작업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수치예보모델이라는 정교한 예측 도구를 거쳐 미래 대기의 움직임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에는 '나비효과'라는 신비로운 자연의 법칙이 숨어있다. 서울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른치럼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또한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증폭되기도 한다.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패턴의 변화, 심지어는 인공위성의 일시적인 오작동까지도 예보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조금이나마 견어내고자 기상청을 비롯한 각국의 예보 기관들은 '앙상블 수치예보'의 지혜를 빌린다. 이는 여러 명의 현자가 각각의 관점에서 미래를 점치듯 초기 조건과 모델의 매개변수를 조금씩 달리하며 여러 차례 예측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모인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이다. 현대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앙상블 예보에 정교함을 한층 더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도입으로 과거의 기상 패턴을 학습하고 미래의 변화를 더욱 섬세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변덕스러움을 완벽히 꿰뚫어 보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를 최대한 거두고 정성껏 벗어낸 예보는 국민에게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애매함'이라는 안개가 끼어든다. "오후에 비가 오

겠다"라는 간단한 문장 속에는 시간과 장소의 구체성이 희미하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같은 세밀한 설명도 여러 매체를 거치며 문장이 축약되면서 맥락이 흐려지기 쉽다. 그래서 '비가 온다더니 맑네?'라는 말이 자연스레 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간극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 때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호우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그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약한 비 소식에 과도한 경계 태세를 갖추는 등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일기예보는 '불확실성'이라는 운명을 안고 태어나 '애매함'이라는 짐을 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본질을 이해한다면 예보와 실제 날씨가 다를 때마다 답답해하기보다는 대기의 변화무쌍한 성질과 예보의 태생적 한계를 받아들이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일기예보를 보고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는 일도 실은 복잡한 과정 끝에 나온 예보의 한 조각을 수용하여 불확실성과 애매함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점점 더 날씨가 민감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상 예보의 불확실성과 애매함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우산을 챙기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자연과 인간, 과학과 일상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기상청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수치예보모델을 정교화하고 앙상블모델의 숫자를 늘리고 예보 용어를 명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고



박홍렬  
수필가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해를 이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처음 전주에서 포문을 연 뒤로 고창, 장흥, 광주 등지로 지역을 넓혀 가며 열리고 있다. '워태워태 시상에 어찌쓰까' 전복 고창 대회에서 나온 전라도 사투리 한 토막이다. 표준말로는 '어머머 세상에 어찌면 좋을까' 정도가 되지 싶다. 혀에 착착 감기는 표현이 절로 자꾸 되뇌어보게 만든다. 전라도만이 아니다. 경상도에서도 지역 사투리 경연 대회가 열렸다는 뉴스를 여러 차례 만났다. 정도에서 반시 축제의 부대 행사로 치러졌는가 하면 창원, 창녕, 거창 등지에서는 각 지역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되었다고 한다. 경상도 말과 전라도 말을 곱금어 음미해 보려하면 둘 다 얼마나 정겨우면서 친근감이 느껴지는지 모른다. 게다가 맛깔스럽기까지 하다. 경상도 말에서는 투박한 뚝배기 맛이 난다면, 전라도 말에서는 상큼한 동치미 맛이 난다. 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합동으로 대회를 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을 열었으면

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 대회를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으로 지었으면 하는 주장을 펴다. 광주와 대구, 두 지역은 오랜 세월을 걸쳐 깊어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골을 메우고 동서 화합을 이뤘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영호남 합동 신년 하례식을 개최한다, 학술 대회를 연다, 문화예술 박람회를 추진한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길을 뚫은 것도 두 지역 간의 교류가 큰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 이듬하여 '88올림픽고속도로'다. 처음엔 2차로이던 것을 훗날 4차로로 확장하면서 명칭을 '광대고속도로'로 바꾸었다. 이래 놓고 보니 어감이 영 좋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바꾼 것이 지금의 '광주대구고속도로'이다. 이러한 갖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두 지역 간에 뿌리박힌 정서적 이질감을 통합하는 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숙제를 풀 가장 좋은 해법으로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을 열었으면 하고 제안한다.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 이 명칭을 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고안해 내었다.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쳐 부르는 말로 각 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경전'을 가져온다. '경전'은 반세기기도 더 전인 꼬맹이 시절부터 익히 들어 온 말이다. 지난날 경상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대구와 전라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광주를 시외버스인 경전여행(慶全旅客)이 운

행했었다. 경상도 하면 대구, 전라도 하면 광주를 떠올리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반 없을 줄 안다. 그 만큼 두 도시는 뚜렷한 대표성을 갖고 두 지역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왔다. 대구의 순우리말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 이름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따서 '달빛'이 생겨났다. 이 신조어가 언젠가부터 언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두루 쓰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서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져서일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 논리의 근거는 얼핏 갖추어진 것 같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합성어인 '경전'을 빌려오면 '경전 사투리 경연 대회'가 된다. 그 다음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표성을 지닌 두 도시 대구와 광주의 순우리말 이름을 앞머리에 세워 '달빛 사투리 경연 대회'로 바꾼다. 다시 다음으로 '사투리'라는 단어는 말 자체가 어쩔지 어감이 좋지 못하니 '곳곳말'로 대체하고, '경연'과 '대회'는 한자어여서 뜻이 곧바로 전달되기도 어렵거니와 케케묵기까지 하여 각각 순우리말인 '겨루기'와 '한마당'으로 고친다. 이리하여 마침내 완성한 이름이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이다. 앞으로 달빛 곳곳말 겨루기 한마당을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에서 해마다 겨룸대기로 열어나갔으면 한다. 이 행사를 통해 서로의 정서와 문화를 아끼고 존중해주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두 지역 간의 해묵은 대립과 갈등은 시나브로 풀어질 수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

社說

### 현재 탄핵심판 지연에 국민 분노 '임계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심해지고 있다. 불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3월을 넘겨 4월을 맞게 됐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110여 일에 가까워지고 변론을 종결할 지도 못 할지 낱었다. 지난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등으로 여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4월로 들어서는 이번 주는 더 미룰 명분조차 없다. 현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국민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최우선으로 선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차일피일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은 더 심해지고 있다. 탄핵 찬성과 반대 걸거리 집회는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여야 정치권은 줄타기와 내란죄 고발 카드로 맞서고 있다. 권한대행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관료는 무책임하게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정 현안에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혼돈의 정국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제 현재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는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이 되고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중임을 잡아 줄 곳은 현재밖에 없다. 현재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로 선고를 마지못선이다. 마지못선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임계점에 도달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하게 해선 안된다. 헌정 질서의 수호자답게 이번 주에는 선고를 하고 여의치 않더라도 최소한 선고기일은 지정해야 할 것이다.

### 8% 넘는 전북은행 예대마진, 향토은행 맞나

은행들의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이 예대금리차로 인한 마진 즉 '예대마진'인데 경기침체 장기화속에 가계들이 은행들의 예대마진 확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향토은행을 자처하는 지방은행들의 예대마진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커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뼈골로 성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월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1.30~1.47%포인트로 집계됐다. 반면 전북은행은 가계 대출금리가 11.44%인데 반해 저축성수신금리는 2.99%로 예대금리차가 무려 8.45%포인트에 달했다. 시중은행보다 예대마진이 6.5배에 달하는 수치로 과연 제1금융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정도 대출금리이면 단위농협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넘어 사채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전북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었던 데 반해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등 집단대출이 줄어든 탓이 크다고 하지만 납득할 만한 해명은 못된다. 전북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2022년 7월 은행연합회가 관련 공시를 시작한 이래 국내 모든 은행을 통틀어 최대치이며 23개월 연속 가장 높기 때문이다. 2월 기준 광주은행의 예대금리차도 2.18%포인트로 공시를 한 19개 은행중 네 번째로 높다.

JB금융지주 차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예대마진율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필로 설명해야 할까. 은행의 핵심 수익인 표면 순이자마진(NIM)에서도 두 은행은 평균 2.69%로 시중은행보다 1% 이상 높다. 향토은행을 자처해 온 두 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이지를 감당하지 못해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 향토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無等鼓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어떠한 형태의 당리당락에도 이용되어서는 안 될 문학자적 순수성의 발로이며, 또한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될 인간 본연의 진실한 외침이다."

51년 전인 1974년 11월 18일, 문인들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한국작가회의 전신)를 창립하고 서울 광화문 의사회관 입구에서 '자실 101인 선언'을 발표했다. 염무웅 문학평론가가 작성한 선언문은 "오늘날 우리 현실은 민족사적으로 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김지하 시인을 비롯한 긴급조치로 구속된 지식인·종교인·학생 석방 등 5개 항의 결의사항을 담았다.

이때 선언문을 낭독하던 고은과 박태순, 송기원, 윤홍길, 이문구, 이시영, 조해일 작가는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같은 해 1월 유신을 반대하며 개헌 청원 지지 성명을 냈던 문학인 60 여 명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간첩으로 조작되던 엄혹한 유신 시절이었다. 당시 30대 초반이던 소설가 윤홍길은 지난해 봄, 장편소설 '문신'을 완결한 후 '월간 예향'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문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까닭에 대해 "암흑시대에 작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일종의 작가로서의 소명(召命)이었다"고 밝혔다.

소설가 한강 등 414명의 문학인들이 최근 '피소추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을 촉구하는 작가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 이전 문학인들의 시국선언이 한 장의 성명서에 담겼다면 이번 '한 줄 성명'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작가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았다. 작가들의 '한 줄 성명'은 짧지만 강렬하다. 아등고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헌법시대 사회적·역사적 책무를 다하려는 문학인들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편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한강 소설가) "내란을 공부하는 고통, 헌법을 공부하는 비참, 국우의 배후와 분열의 배후를 공부하는 통증, 공부하는 분노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믿음.(김소연 시인)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나 날 뛰세요.(소포클레스, '안티고네'에서)"(신형철 문학평론가)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